멕시코 오아하카(Oaxaca) 주 원주민의 남캘리포니아 이주와 트랜스로컬 연대*

장세용**

〈차 례〉

1. 서 론
2.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오아하카 주 원주민의 이주 배경
3. 오아하카 원주민의 이주 경로와 문화 정체성
4. 오아하카 주 이주민의 트랜스로컬 연대와 로컬리티의 재구성
5. 결 론

【국문초록】

2006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멕시코 오아하카 주 오아하카 시에서 벌어진 교사파업시에 미국 특히 LA로 이주한 가족 및 친척과 양국원주민전선(FIOB)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본향의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 배경에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로 멕시코 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경제통합의 가속화가 초래한 경제위기에 내몰린 오아하카 주 중부산악계곡 원주민 사포텍(Zapotecos) 부족과 믹스텍(Mixtecos) 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법 월경 이주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되었음(NRF- 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jdragon@pusan.ac.kr)

를 거쳐 남캘리포니아 특히 LA와 샌 디에고 인근에 정착하여 통칭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불리는 현실이 작용한다. 이들은 출신지역과 종족적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위성공동체를 형성하여 본향 공동체와과 사회경제는 물론 정치문화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순환이동하며 본향의 로컬거버넌스와 정치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필자는 이들이 멕시코의 주류국민 메스티소와 같은 초국가적(transnational) 층위의 정체성을 일정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성공동체와 본향공동체가 문화의 혼종화와 ‘정치문화적 정보와 교통과 참여행동의 연결망’ 공간을 형성하고 양국간 조직을 통하여 원주민 종족성을 확장하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관습법에 따라서 본향의 로컬거버넌스에 제3공간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본향의 로컬리티를 재구성하고 이중국적 개념의 발전을 자극한 것을 트랜스로컬(translocal) 이주 현상으로 재평가를 시도한다.

주제어: 이주, 원주민, 사포텍족, 믹스텍족, 양국가 조직, 트랜스로컬

1. 서 론

2006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멕시코의 최서남단에 자리 잡은 오아하카 주(estado) 오아하카 시(Oaxaca de Juárez)[1]에서 교사들이 1592년 에스파냐인들이 건설한 광장을 점거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육혜

1) 면적 93,793㎢ 2011년 인구 3,836,122, 주(州) 명칭 wə’ha：kə/wə-HAK-kə (영) wa’xaka(스페인) 오아하카 시(Oaxaca de Juárez)의 후아레스라는 명칭은 오아하카 주 출신으로 1861-72년 대통령을 지낸 존경받는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 1806-1872)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택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찰이 교사들을 거칠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확산되어 점차 호전적인 사회운동으로 전화했다. 오아하카 주 3백여 사회조직의 동맹체 오아하카민중회의(Asamblea Popular de los Pueblos de Oaxaca, APPO)가 교사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수천 명이 행진을 벌여 주청사와 연방 사무실, 국영 TV와 방송국을 점거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커뮤니티 위원회를 조직하며 전국적 임시위원회 대표를 선출했다. 이들은 80년 동안 오아하카 주를 통치해온 제도혁명당(PRI) 정부와 당시의 울리세아 루이스(Ulisea Ruiz) 주지사 행정부에 깊은 불신을 제기했다. 주목할 것은 이들 전국교직원노조 22구역지부 소속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은 오아하카 주 각지에서 왔지만, 다수는 멕시코의 다른 지역이나 미국 특히 LA로 이주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은퇴한 전직 동료였던 사실이다. 운동은 처음부터 LA의 가족 구성원이나 조직들과 연계를 갖고서 발전했다. 다수의 교사와 원주민지도자를 포함한 양국원주민전선(FIOB)[2]은 22구역지부 및 민중회의와 가장 활발하게 접촉한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 LA 거주 오아하카 주 출신 이주민들은 본향 경찰의 폭력적 교사 탄압에 큰 관심을 갖고 현지의 격렬한 시위를 생중계로 접하며 지원 방도의 수립을 원주민전선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다.

LA거주 오아하카 주민들이 본향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나선 배경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 온정주의적 원주민 지원 정책인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를 넘어서 원주민 자치와 해방을

2) 1991년 캘리포니아에서 Frente Mixteco Zapoteco Binacional(FMZB)으로 설립, 3년 뒤 Triquis, Chatinos 및 Mixes족을 포함하여 Frente Indigena Oaxaqueño Binacional(FIOB)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5년 오아하카에서 열린 제5회 총회에서 Michocán출신 Purépecha족과 인접한 Guerrero 주 출신 Mixtec족을 포함하고자 Frente Indigena de Organizaciones Binacionales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두문자 FIOB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하 본문에서 '원주민전선'으로 축약한다. http://fiob.org.

모색하는 인디아니스모(indianismo) 운동과 연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것이 작동하는 구체적 현실을 탐색하는 일환으로 오아하카 주가 1980년 이래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로 원주민 출신 이주민을 대거 송출한 현상에 주목한다. 오아하카 주민들의 미국이주는 전체 주민의 27%가 참여한 콜리마(Colima)주, 23%가 참여한 타마울리파스(Tamaulipas)주에 비교하면 7%로서 절대수는 적지만, 1990년대부터 급증한 원주민 이주와 진보적 행동주의가 학술적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오아하카 주 중부산악계곡 원주민 사포텍(Zapotecos)부족과 믹스텍(Mixtecos)부족 공동체가 평균 가구 34%의 고밀도 이주를 발생시켜[3] LA,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샌 버나디노(San Bernadino)를 비롯한 남캘리포니아에 20여만명이 거주하고 애리조나, 오레곤, 워싱턴 주를 비롯한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불리고 있다.[4] 소득, 산업화 및 고용지표에서 사회발전과 경제조건이 멕시코에서 가장 뒤떨어져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마지막까지 시행된 지역이며, 공용스페인어에 미숙하여 메스티소에게 이류국민 취급 받는 오아하카 주 원주민들이 남캘리포니아에 집단거주하게 된[5] 배경은 무엇인

---

3) Jeffrey H. Cohen, *The Culture of Migration in Southern Mexico*,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4, p. 21, p. 63, p. 65.

4) Javier Huizar & Isidor Cerda, "Indigenous Mexican Migrants in the 2000 U. S. census: 'Hispanic American Indians'", Jonathan Fox & Gaspar Rivera-Sagaldo (Eds.), *Indigenous Mexican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San Diego: Uni. of California, 2004, pp. 279-302. 현재 캘리포니아 인구 3650만에 1300만이 라티노이고 그 가운데 1100만이 멕시코 기원이어서 "Mexifornia"화를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있다. Peter Schrag, *Not fit for our Society: Immigration and Nativism in America*, Uni. of California Press, 2010, p. 211. LA 카운티에 오아하카 원주민 출신 이주민이 69,000명 정도 거주하며 오아하카 레스토랑이 여러 곳 있고 오아하카인 민속예술화랑(Oaxacan Folk Art & Gallery)이 산타모니카 피코(Pico)대로 2919에 소재한다(2919 Pico Blvd, Santa Monica, CA 90405).

5) 노동자들의 미국 남부 이주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고 1942년 미국과 멕시

가? 여기서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서 비롯하는 멕시코 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경제통합의 가속화가 초래한 경제위기가 사포텍과 믹스텍의 이주를 적극 추동한 사실에 주목한다.

먼저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 송출국가 멕시코 이주민의 역사는 4세대까지 배출한 서부 멕시코 할리스코(Jalisco) 주가 출발점이다.[6] 1980-90년간에 멕시코 출신 이주민 480만 가운데 절반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7] 미국사회에서 1990년대에 증가한 이주민 1천 백삼십만 명 가운데 43%가 멕시코계이다. 최근 라틴계(Latinos)가 아프리카계를 제치고 미국 사회 제1의 소수민족이 된 배경이 여기 있다. 통계상 지난 20년간 멕시코인은 전통적 정착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를 넘어 북부와 동남부(조지아, 캐롤라이나, 아칸소) 등으로 이주 목적지가 다양해졌다.[8] 그러나 여전히 30%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고 그 가

코의 쌍무협정으로 농업노동자들에게 합법적 단기계절노동 브라세로(Bracero) 프로그램이 1964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농장 파시즘이라 불린 억압적 노동조건에서 밀밭폭동과 파업이 일어났고 노동조합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 프로그램은 멕시코 이주민 형성에 큰 자극을 주었고 지금도 그 유제가 불법이주노동자 형식으로 남아 있다. Carey McWilliams, *Factories in the Field: The Story of Farm Labour in California* (1939), Hemden: Archon Books, 1969: Uni. of California Press, 1999.

6) 제2도시 과달라하라(Guadalajara)가 주도이다. cf. W. A. Cornellius, D. A. Fitzgerald & Scott C. Borger (Eds.), *Four Generation of Norteños: New Research from the Cradle of Mexican Migration*,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7) Lynn Stephen, *Transborder Lives: Indigenous Oaxacans in Mexico, California, and Oregon*, Duke U. P., 2007, p. 75.

8) Douglas S. Massy & Chirara Capoferro, "The geographic diversification of American immigration", Massy (Ed.), *New Faces in New Places: The changing geography of American imigration*, Russell Sage, 2008, pp. 39-40. Eileen Diaz McConnell, "The U. S. destination of contemporary Mexican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4, 2008, pp. 791-792. Fernando Riosmena, "Pathways to El Norte: origins, destin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Mexican 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6-1, 2012, p. 28.

운데 절반이상은 노동자로 취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미등록(undocumented) 이주민이다.[9] 최근 LA로 대표되는 전통적 정착지에서 높은 주택임대료와 낮은 임금으로 포화상태에 이른[10] 멕시코계 이주민들은 미국의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며 중서부에서는 주로 육류가공업, 동남부에서는 농업, 섬유노동자, 육가공 플랜트, 채소와 과일 재처리장 또는 판매장에 취업하고 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교육수준과는 큰 관련 없이 건설업, 레스토랑과 호텔 같은 서비스업에 저임금미숙련 노동력의 주요 제공자이다.[11]

오아하카 주 원주민의 이주도 본래는 다른 멕시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남성이 반년~1년 주기로 오가는 단기 순환 이주였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불법이주자들의 남캘리포니아 정착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샌 화킨(San Joaquin) 계곡지역 지역, LA와 샌 디에고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지역과 종족적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위성공동체를 형성하여 본향과 사회경제적 관계는 물론 정치문화적 연결망을 유지하며 순환이동하고 이것이 오아하카 본향의 로컬거버넌스와 정치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의 이주는 국가 경계를 넘는 초국가적 또는 경계 넘기 개념으로 설명되었다.[12]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트랜스로컬 이주 현상으

---

9) 멕시코계 이주민 가운데 등록 노동자와 미등록 노동자 사이에 임금격차는 비슷한 교육수준일 경우 남성은 17% 여성은 9%로 알려진다. 단 직업이 지속적이면 8%와 4%로 떨어진다. Mattew Hall, Emily Greenman and George Farkas, “Legal status and wage disparities for Mexican immigrants”, *Social Forces* 89-2, 2010, p. 507.

10) Ivan Light & Elsa von Scheven, “Mexican migration networks in the United States, 1980-2000”,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3, 2008, p. 718.

11) Mattew Hall & George Farkas, “Does human capital raise earnings for immigrants in the low-skill labour market”, *Demography* 45-3, 2008, p. 632.

12) 대표적으로 Gaspar Rivera-Salgado, “Mixtec activism in Oaxacacalifornia: Transborder grassroots political strategies”, *American Behaviorial Scientist* 42-9,

로 설명한다. 초국가적 이주 개념이 통상 개인, 집단, 기업이 국경을 넘는 단기적 '사건적 이동'으로서 위로부터 국가와 자본을 통하여 전지구화로 포섭되는 현상을 강조한다면, 트랜스로컬 이주는 다중공간에서 주기적 '순환이동'이 전지구화를 전유하며 새로운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개념화를 시도한다. 이것은 남부캘리포니아 지역이 히스패닉으로 불린 멕시코인들의 역사적 거주공간이며 '국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국경이 그들을 넘어온' 친숙한 공간인 것과 맞물린다.[13] 여기서 오아하카 원주민 이주자들이 멕시코계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위성공동체를 건설하여 본향공동체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문화의 혼종화와 '정치문화적 정보와 교통과 참여행동의 연결망'[14] 공간을 형성하는 양상은 이들의 이주현상을 재해석할 필요를 요청한다. 본고는 이들이 순환과 정착을 병행하며 본향의 로컬거버넌스에 제3공간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종족성과 로컬리티를 재구성하고 이중국적 개념의 발전을 자극한[15] 것을 트랜스로컬 이주현상의 산물로 평가하고[16] 그 논리

1999, pp. 1439-58. Velasco Ortiz, *Mixtec Trans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5, p. 15. 오아하카의 '산 환 델 에스타도'(San Juan del Estado) 무니시피오(municipio)를 다룬 국내 연구에서는 '국제노동이주'로 설명되었다. 주종택, 「미국의 이주정책과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의 형태」, 『라틴아메리카연구』 24-2, 2011, pp. 1-26.

13) 임상래, 「미국 남서부(Southwest)의 문화·지리적 이해: 멕시코성과 국경성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 22-1, 2009, pp. 75-98.

14) Kimberly M. Grimes, *Crossing Borders: Changing Social Identities in Southern Mexico*,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8, pp. 12-19.

15) David Fitzgerald, *A Nation of Emigrants: How Mexico manages It's Migration*, Uni. of California Press, 2009, p. 33.

16) 물론 멕시코의 주류 국민 메스티소 역시 위성공동체를 형성하고 복합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공동체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지만, 원주민들은 공동체에 관습법의 적용을 받으며 양국가 조직이 본향의 로컬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로컬리티를 재구성하는 양상은 독

의 타당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오아하카 주 원주민의 이주 배경

멕시코 전체로 보면 최근까지도 나와(Nahua)족과 마야(Maya)족 등 원주민들은 이주행렬에 많이 참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미자유협정이 가져온 폐소화 위기로 농촌경제가 열악해지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결정적 계기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선행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공유지(ejido)를 폐지하고, 집단농장의 사유화와 외지인에게 토지매각, 국내농가 보조금 지급 축소로 말미암아 미국과 캐나다 곡물과 종자의 급속한 수입증가, 특히 커피원두 가격 폭락으로 농업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킨 현실이다.[17]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기초소비품 소비자 지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미국은 원주민 종족성이 공식적 약점이 되지 않는 사회로 알려지면서, 젊은이들의 이주 신드롬을 크게 자극했다. 그 결과 베라크루즈, 시나로나(Sinalona), 소노라(Sonora), 바하(Baja) 캘리포니아를 거치는 이주행렬이 남부캘리포니아에 오아하카 출신 이주민공동체들을 형성시켰다. 물론 이것이 모두 원주민공동체인 것은 아니고, 내부에도 종족성에 따라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주민의 정체성 형성에서 근본 원천이 되는 것은 국민의 구성원이라는 인식보다는 물질화한 풍경으로 구성된 고향의 장소가 기억의 기원이 되는 공동

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17) Patricia Fernanández-Kelly & Douglas S. Massy, “Border for whom? The role of NAFTA in Mexico-U. S. migr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0, 2007, p. 99, p. 105. 공유지 해체는 농업경영의 최후 보루를 박탈하여 농업포기가 속출했다. 이것은 미국이 나프타 체결시에 값싼 원주민노동력 획득을 염두에 두었던 것을 말한다.

체에 있다.[18] 필자가 원주민 공동체를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종족성과 장소성에 기반을 둔 로컬공동체 단위로 이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때의 로컬공동체는 유동하는 경계와 정체성을 가진 복수종족성(multiethnical)이 복수로컬(multilocal)에서 전개되는 다중공간(multiscalar)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 "로컬은 의미, 문화적 형식과 실천들이 이주의 강화를 통해서 생산, 수송 및 재기술되는 유동 공간으로 재평가 받는다. 로컬은 이주민이 오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장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19]

오아하카 중앙계곡의 사포텍 부족과 믹스텍 부족 농촌공동체가 국경도시 티화나(Tijuana) 엔세나다(Enseneda) 로사리토(Rosarito)를 거쳐 LA로 노동이주 행렬에 가담한 시기는 브라세라 프로그램이 끝난 1974년부터이다. 이들은 먼저 국경도시에 소재하는 임가공공장(maquiladora) 취업으로 장차 미국의 도시에서 겪을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켰다.[20] 접경지 엘 노르테(El Norte)캘리포니아의 주

---

18) Ortiz, *Mixtec Transnational Identity*, p. 105. 전인구 1/10이 원주민이다. 인구는 나후아틀(Nahuatl) 2,445,969(언어사용자 1,659,269) 마야(Maya) 2,475,575 (892,723) 사포텍(Zapotec) 777,253(505,992), 믹스텍(Mixtec) 726,601(510,8010) 순서이다. 워학커 주 2005년 센서스는 사포텍 357,134, 믹스텍 290,049, 마사텍(Mazatec) 164,673, 치나텍(Chinatec) 104,010, 믹세(Mixe) 103, 089, 차티노(Chatino) 42, 477, 트리크(Trique) 18,292, 후아베(Huave), 15,234, 쿠이카텍(Cuicatec) 12,128, 초케(Zoque) 10,000 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상 워학커 주는 인구의 48%가 원주민이다. 참고로 유카탄 주는 59%가 마야족이다.

19) Alejandro Castañeda, *The Politics of Citizenship of Mexican Immigrants*, New York: LFB Scholarly Pub., 2006, p. 12

20) 1980년대 중반부터 주로 멕시코-미국 국경 도시에 면세부품과 원료를 수입하여 조립생산한 완제품을 10-25% 정도 가공요금을 부가하여 수출하는 공장이 80년대 중반 20만 명 1990년대 말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한 결과 멕시코 산업은 노동가치로서 임금만이 수출가에 반영되어 외화소득의 주

요도시 멕시칼리(Mexicali)와 티화나의 임가공공장에 취업한 많은 농촌청년들은 월경을 시도했다. 그러면 왜 하필 LA가 주요 목적지였나? LA는 멕시코와 근접한 대도시라는 지리적 조건을 넘어서 금융, 하이-테크, 엔터테인먼트 분야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 세계도시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경계를 넘는 전략적 지리공간으로서 포스트-포드주의 메트로폴리스의 패러다임이 관철되는 현장이었다.[21] 그 결과 가사노동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 저임금 고용직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이주민 노동시장의 수용력이 컸다.[22] LA의 가사노동 수요의 급증은 특히 여성의 이주도 가속화

요원천이 되는 불안한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구조가 활성화되었다. '가공요금'을 뜻하는 마킬라(Maquila)는 대부분 멕시코・아시아・미국계 회사이다. Raúl Delgado Wise & James M. Cypher, "The strategic role of Mexican labour under NAFTA: Critical perspectives on current economic integr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0, 2007, pp. 120-142. Carol Zabin & Sallie Hughes, "Economic integration and labour flows: Stage migration in farm labour markets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 2008, pp. 395-422.

21) Saskia Sassen, "Local actors in global politics", *Current Sociology* 52-4, 2004, pp. 649-70. Ivan Light, *Deflecting Immigration: Networks, Markets, and Regulation in Los Angeles*, Russell Sage Foundation, 2006, p. 18.

22) 민주당이 주도한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고용평등을 강조하여 여성이 가사노동을 벗어나 비서, 판매원, 공공서비스 분야는 물론 환자가정, 병원, 카페, 호텔 등에 고용을 허용하여 여성 이주에 자극제가 되었다. 70-80년대부터 여성 이주 증가로 가족과 친족의 결합이 늘어나 새로운 이주민 관계망 형성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원주민 공동체 내부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송출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미국 자체에는 1986년 이민개혁과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주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가족재결합을 원하는 여성의 이주를 인정했다. Bribrilia Cota-Cabrera, Emily Hildreth, Andrea Rodríguez & Viridiana Cansesco Zárate, "San Miguel Tlacotepec as a community of emigration", Wayne A. Cornelius, David Fitzgerald, Jorge Hernández-Díaz, & Scott Borger (Eds.), *Migration from the Mexican Mixteca: A Transnational Community in Oaxaca and California,*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2009, pp. 15-7.

시켰다.[23] 오아하카에서 가장 큰 원주민 집단인 사포텍 이주민 관련 연구는 일찍부터 축적되었다. 오아하카 시에서 31km 떨어진 중앙계곡 틀라코룰라(Tlacolula) 지구에서 사포텍 문화를 유지하는 인구 5,600명의 테오티틀란(Teotitlán de Valle)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20세기 초에 이미 직조와 농업의 대체 수입을 찾아서 오아하카 시, 치아파스 주 타파출라(Tapachula), 특히 수도 멕시코 시티 등 멕시코 전역에 단기계절 노동자로 이주를 거쳐 남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역사는 다른 사포텍 공동체도 비슷하게 겪었다.[24] 사포텍은 오아하카 시에 가깝게 살며 친족이나 공동체 연결망을 통해서 직접 이주하며, 멕시코 북서부의 계약농업 노동자 역할보다는 기업체 취업 경험을 가져 장차 LA의 서비스 분야 종사와 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들은 주로 LA의 피코 유니언(Pico-Union)과 사우스 센터럴 특히 한인타운인 코리아타운과 좀 떨어진 곳에도 정착했다.

중앙계곡 사포텍의 이주와 노동시장 접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망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가족과 친구관계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었다. 틀라코룰라 지역에는 사포텍 말을 하는 전문밀입국 주선자 일명 '코요테'(coyotaje)가 희망자를 LA로 인솔했다. 1980년대가 되면 남캘리포니아에 개인과 가족의 성공선례를 따라 이주자

---

23) Susan Gonzólez Baker, "Mexican-origin women in southwestern labour market", Irenne Brone (Ed.), *Latinos and African woman at work: race, gender and economic inegality*,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p. 249. Light, *Deflecting Immigration...*, p. 51. 그러나 현재는 노동수요 추동(demand-driven) 이민은 점차 약화되고 공급자 추동(supply-driven) 이민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가사노동 이주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24) Marije Hulshof, *Zapotec moves: Networks and remittances of U. S.-bound migrants from Oaxaca, Mexico*, University of Amsterdam Press, 1991. Jeanine Klaver, *From the land of the sun to the city of angels; The migration process of Zapotec indians from Oaxaca, Mexico to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Amsterdam Press, 1997.

들이 정착하고 동향의 이웃끼리 결속(paisanazgo)의 정신에 따라 노동시장 연결망에서 상호부조 정신을 발휘했다. 2000년대 초에는 12개의 오아하카 이주민 공동체가 성립되었고, 그 가운데 3개는 압도적인 사포텍 공동체였다. 제프리 코헨이 이주가 주로 친족적 결속관계와 연관시켜 추진되므로 공동체적 요소의 작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현상이라고 평가한 것은[25] 친족관계의 작동에만 주목하여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양상을 폭넓게 간파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런 공동체들은 함께 '오아하카 원주민 이주자 공동체 조직'(OCIMO)으로 대표되는 상호연대 풀뿌리 조직을 만들었다. 남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이주민 다수(54%)는 LA로 이동했고 일부는 주요도시 레스토랑에 취업했다. 테오티틀란, 틀라코룰라, 산 루카스(San Lucas Quiaviní) 출신들이 서비스분야와 레스토랑에 취업하면서 저임금이지만 안정된 직장을 얻고 일부는 저축으로 소기업을 차렸다. 1992년에는 산타 모니카에 최초로 오아하카 출신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을 개업하더니, 2003년에는 LA에 28개로 늘어났고, 그 가운데 18개는 틀라코룰라 출신 사포텍 소유다.[26] 코헨의 연구는 미국에서 오아하카 중앙산악지대 출신들은 48%가 레스토랑, 호텔, 가스충전소, 편의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오직 16%만이 농업, 14%는 건설과 미숙련노동, 13%는 개인가구나 조경회사 정원사, 8%는 가사노동자로 고용된 것을 보여준다.[27]

---

25) 사포텍 공동체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은 시카고이고, 최근 북 뉴저지, 남동펜실바니아로도 진출했다. Cohen, *The Culture of Migration in Southern Mexico*, p. 53, p. 78, pp. 127-8.

26) Felipe López and David Runsten, "Mixtecs and Zapotecs in California", Fox and Rivera-Salgado (Eds.), *Indigenous Mexican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p. 267. 1994년 코리아 타운에 개업한 상호명 Guelaguetza는 Santiago Matalán에서 온 남매 소유이다.

27) Cohen, *The Culture of Migration in Southern Mexico*, p. 79. 일부는 수퍼마켓, 약국, 창고, 공장 등에서 시작하여 운영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멕시코인 이주민은 필리핀인과 더불어 자영업 비율이 5%대로 낮고 원주

한편 믹스텍은 역사적으로 사포텍보다는 높은 비율로 원주민 단일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스페인어에 서툴고 교육 수준도 낮다.[28] 사포텍이 믹스텍을 약간 낮추어 보는 이유도 여기 있다. 믹스텍은 이주지에서 불안정한 계절농업노동과 고립노동 거기에다 임금체불과 미지급 및 노동법 위반의 주요 희생자였다. 사회적 이동에서도 소수의 감독직은 먼저 온 메스티소 이주민들이 집요하게 차지했고 기업농으로 자립은 너무 어려웠다. 그 결과 40년이 넘도록 북서멕시코와 멕시코시티 주변 및 캘리포니아 평원에서 힘든 농업노동자 역할을 담당했다.[29] 이들도 90년대 들어서면 공장노동, 건설직, 서비스직, 심지어 LA에서 항공기유지보수직 등에 종사하여 직종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확기에 남캘리포니아와 본향을 오가는 농업노동자인 경우가 더 많고, 그 과정에서 인력모집업자(enganchadores)와 고용주의 전횡과 횡포, 심지어 메스티소의 멸시와 권위적인 행정당국의 인권침해로 고통을 겪었다. 이들이 겪은 차별과 고난, 열악한 거주환경과 언어적 차이는 도리어 일정한 자의식의 형성을 자극했다는[30] 평가를 받는다.

믹스텍의 이주가 급증한 것은 2001년 곡물가격이 1994년 대비 70% 수준으로 하락하고 빈민의 주식인 토티야 가격 1kg이 1999년

민출신은 더욱 낮다. Robert W. Fairlie & Christopher Woodruff, "Mexican Entrepreneurship: self-employment in Mexico and the U. S", George J. Borjas (Ed.), *Mexic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 124. 한국인과 그리스인은 30%대 안팎이다.

28) Ortiz, *Mixtec Transnational Identity*, p. 31, p. 54, Stephen, *Transborders lives …*; p. 121.

29) 멕시코 남부 오아하카 주 북부와 서부, 인접한 게레로(Guerrero)주와 푸에블라(Puebla)주에 사는 원주민으로서 역사적으로 아즈텍 시대 이전부터 고도의 문명을 유지했다. 믹스테카는 빈곤하고 광범한 토양 침식과 변덕스런 폭우로 농업생산이 순조롭지 않아서 멕시코에서 원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되었다.

30) Michael Kearney, "Transnational Oaxacan indigenous identity: The case of the Mixtecs and Zapotecs"', *Identities* 7-2, 2000, pp. 173-95.

에는 3배로 뛰면서 농촌공동체가 붕괴지경에 도달한 것과 연관 있다.[3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선의 최우선 희생자였던 이들은 개방경제의 파고를 피해서 미국 서부해안은 물론 애리조나에서 오레곤과 워싱턴 주까지 전례 없는 노동이주를 감행했다. 바하 캘리포니아와 캘리포니아 전체에는 오아하카 원주민 이십만 가운데 믹스텍 부족 십만 명이 거주한다. 특징적인 것은 농업노동자 중심이었던 믹스텍의 위성공동체가 농업지역을 넘어 LA, 샌 디에고 같은 도시로 확산되어 도시와 농촌, 국가내부와 국가 간의 연결망을 가진 공동체로서 존립하는[32] 사실이다. 본래 위성공동체는 경작시기에만 존재했지만 정착화 경향이 그 성격을 변화시켰고, 비록 미국의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의 다양한 조직들이 트랜스로컬 활동을 전개한다.

LA북쪽 산타 마리아에는, 믹스텍 공동체 산 아우스틴 아테낭고(San Augustin Atenango) 주민 2백 여 명의 위성공동체 아테낭고가 있다. 샌 디에고 카운티 북쪽 소도시 비스타(Vista)에도 트랄코테펙 출신(Tlacotepenses) 2세대 이주민의 오랜 위성공동체 산 미겔 트랄코테펙(San Miguel Tlacotepec)이 있다.[33] 오아하카 시에서 273km 6

---

31) Gonzalo Fabjul and Arabella Fraser, “Dumping without borders: How U.S. agricultural policies are destroying the livelihood of Mexican corn farmers”, *Oxfam Briefing Paper 50*, www.mindfully.org/ WTO/2003/US-mexican-Oxfam 27aug03.htm, 2012.09.11 검색.

32) 캘리포니아 거주 믹스텍 75%는 농업에 종사하고, 이는 주 전체 농업노동력의 5%로 추정된다. Ortitz, *Mixtec Transnational Identity*, p, 52, p. 99. 멕시코의 소노라, 시나롤라, 바하 캘리포니아 농업지역과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노갈레스, 멕시칼리 등 도시에도 위성공동체가 존재한다. 농업노동자들은 과거의 이주 경험을 많이 따라서 정착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Anita Alves Pena, “Locational choices of the legal and illegal: The case of Mexican agricultural workers in the U. 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4, 2009, p. 874.

33) 비스타 시의회는 2006년 6월 일용노동자를 고용할 때 시 당국에 등록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주로 원주민으로 구성된 이주민 일용노동자를 견제

시간 거리 떨어진 본향 트랄코페텍은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 698 가구 가운데 주민 30% 정도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가운데 젊은이는 드물고 빈집이 196(28%) 가구이며 2007년에는 217(31%) 가구로 증가했다. 그 결과 본향의 공동체는 성인노동력 부재로 공동화로 치닫고 있다. 반면 샌 디에고의 트랄코테펙은 미국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멕시코 원주민 공동체 가운데 하나이며, 믹스텍 부족이며 오아하카 주민이고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졌다. 위성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계기는 먼저 온 이주민들이 뒤에 온 이들에게 일정기간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위성공동체를 어떻게 볼 곳인가? 드 제노바는 이 공동체는 미국이란 국민국가 공간과 단절된 공간이기 보다는 '진정 새로운, 급진적으로 다른 사회구성체'의 가능성을 구현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34] 9월말 본향과 위성공동체에서 동시 개최되는 연례축제는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계기이다. 2008년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1천명이나 모여 하루 종일 잔치를 벌이며 본향의 축제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함께 즐겼다.[35] 이주민들은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비디오와 컴퓨터 등 각종 정보통신 도구로 안부를 전한다. 위성공동체 형성에서 정보통신 기구의 역할은 이주의 정착화를 자극한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면 이들이 정착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 첫째 경제적 문

하려는 정책이었다. Michael S. Danielson, "All immigration politics is local: The day labour ordinance in Vista, California", Monica W. Varsanyi (Ed.), *Taking Local Control: Immigration policy activism in U.S cities and sta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 241.

34) Nicholas De Genova, *Working the Boundaries: Race, Space, and "Illegality" in Mexican Chicago* , Duke U. P., 2005, p. 190.

35) Richard Kiy & Naoko Kada, "Building a case for cross-border service provision for transnational Mexican migrants in San-Diego", Kiy and Christopher Woodruff (Eds.), *The ties that bind us: Mexican Migrants in San Diego County*, Lynne Rienner Pub., 2005, pp. 190-5.

제이다. 북미자유협정 이후 미국은 경제호황으로 고용기회를 증대시켜 잠재적 이주자들에게 강한 흡인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심화와 폐소화 위기는 멕시코가 이주민의 송금에 사회경제적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이끌었다.[36] 더 심각한 문제는 이주민이 미국의 생산체계에 최하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되면서 미국 생산품의 비교우위를 계속 보장하여 이주민이 결국 본국의 경제기반을 더욱 침식하는데 일조한 측면이다. 이것은 원주민 비율이 높은 오아하카, 게레로, 푸에블라, 모렐로스(Morelos) 이달료(Hidalgo) 등 전통적 농업지역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주민들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 등에서 글로벌농업생산 구조에 계속 편입되어간 결과와도 맞물린다.[37] 둘째는 국경경비강화의 산물이다. 1994년부터 도시지역 국경입국에 통제가 강화되자 산악과 사막지역으로 밀입국에서 강도·강간은 물론 생명의 위협이 커지고, 밀입국 비용이 3천불 정도로 대폭 상승하면서 정착이 증가했다. 세 번째 요소는 농업노동자로 시작한 원주민 이주민들이 농업노동력에서 탈피하여 점차 서비스나 건설업의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며 미국경제에 깊숙이 통합되는 경향과 연관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비록 주택 구입은 어렵지만 미국경제의 다양한 보험금융 체제에 편입되었고 케이블 TV, 인터넷, 자동차 할부구입 등으로 소비의 증가가 생계비용을 대폭 상승시켜 저축이 쉽지 않은 조건으로 내몬 결과 정착이 증가했다. 네 번째 요소는 세계화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패러다임 안에서 반복되는 불경기에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빈곤이 증대하여[38] 비정착 이주민은

36) Raúl Delgado-Wise and Humberto Márquez Covarrubias, “The reshaping of Mexican labour export under NAFTA: Paradoxe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Miration Review* 41-3, 2007, pp. 656-79.

37) Lynn Stephen, *Transborder lives*…, p. 122.

38) Light, *Deflecting Immigration*…, pp. 73-8. Philp Martin, “Recession and migration: a new era for labour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상대적으로 불리한 고용 대우를 받게 된 사실이다. 불경기가 지속될수록 본국귀환은 고용상실이나 노동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담스런 일이 된 결과 귀환보다는 정착을 선택하고 귀환하는 경우에도 단기체류를 선호하게 되었다.

3. 오아하카 원주민의 이주 경로와 문화정체성

멕시코에서 가장 주변부이며 척박한 자연조건의 오아하카 주 중앙산악지대 원주민들은 현재 불법이주의 주체이며 대상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메스티소의 멸시를 받으며 로컬 간 경쟁, 사회안전망 약화, 사회경제적 불안 증가, 거기에 마약과 범죄조직의 폭력과 치안 혼란으로 희생을 겪었다.[39] 이런 열악한 조건은 원주민들이 혼자 또는 코요테의 도움으로 불법이주민 행렬에 가담하도록 자극했고 심지어 단순한 경제적 조건의 추구를 넘어 이주가 제도화 되었다는 평가까지 받도록 이끌었다.[40] 한편 북미자유협정 체결 이후 물자와 인적 교류의 활성화로 국경의 다공성이 증가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미국이 도리어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역설이 발생했다. 신자유주의 전지구화가 차이와 구별의 철폐를 강조하면서 도리어 시민들의 차이, 이방인과의 구별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북미자유협정이 도리어 국민화(nationalization)를 자극하여 월경자들

43-3, 2009, pp. 688-689.

39) Charles H. Wood, Chris l. Gibbson, Ludmila Ribeiro and Paula Hamsho-Diaz, “Crime victimization in Latin America and intentions to migrate to the Unit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2010, p. 19.

40) Katherine M. Donato, Branden Wagner, and Evelyn Patterson, “The cat & mouse game at the Mexico-U. S border: gendered pattern and recent shif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2, 2008, p. 354.

을 '불법'(illegal)으로 낙인찍고 국민국가 경계를 강화하는 역설적 규제정책을 부추긴 셈이다.[41] 여기에는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이 시민권 획득을 엄격히 하여 이민자 불법취업을 막고[42] 1996년부터 통제를 더욱 강화시킨 현실이 상승작용 했다.

1993년부터 미국은 30억 불 이상을 투입하여 샌 디에고/티화나, 시우닷 후아레스/엘 파소를 시발로 거의 요새화된 수준의 국경 감시와 통제로 비공식 이주민들의 월경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월경 시도자 체포가 감소하고 미등록 이주민은 세 배로 증가하여 국경통제의 성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트랄코페텍의 경우 국경통제 강화로 다수가 월경에 실패하지만, 월경시도 와중에 죽음을 맞는 경우를 제외하면 끝까지 좌절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2005-2007년 사이에 월경시도에서 첫 번째 입국자는 58%, 두 번째 시도자는 20%, 세 번째 시도자는 20%가 성공하고 최종 실패자는 3%에 불과한 것을 보여준다.[43] 그러나 문제는 통제가 강화되면서 '코요테'[44]에게 지불하는 밀입국 비용이 급상승한 것이다.

---

41) Joseph Nevins, "Dying for a cup of coffee? Migrant deaths in the US-Mexico border region in a neoliberal age", *Geopolitics* 12, 2007, p. 240.

42) IRCA가 이주민의 불법취업을 자극하여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하락 초래했다는 비판과, 임금하락은 이 법의 탓이 아니라 그전부터 진행된 결과였다는 반론으로 나뉜다. Light, *Deflecting Immigration*…, pp. 31-2.

43) Parks, Lozada, Mendoza and Garcia Santos, "Strategies for success in border crossing", *Migration from the Mexican Mixteca*…, p. 48. 미국에서 경험의 축적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향에 관해서 Donato, Wagner and Patterson, "The cat and mouse game at the Mexico-U. S border…", p. 352.

44) 코요테는 통상 이주민을 등치는 부정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Jeffrey Kaye, *Moving Millions: How Coyote Capitalism fuels Global Immigration*, John Wiley & Sons Inc., 2010, pp. 170-90. 그러나 국민국가가 장악한 인간이동의 독점을 깨트리는 사회적 관계망이며 사회적 자본이고 지식의 문화적 기금이라고 긍정하는 해석도 있다. David Spencer, *Clandestine Crossings: Migrants and Coyotes on the Texas-Mexico Border*, Cornell U. P., 2009, p. 163.

그 결과 본향으로 귀환은 줄어들고 미국에 숨어 지내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 연구는 기존에는 60-70%이던 귀환율이 45%로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45] 한편 최근 미국경제 위기가 가져온 고용전망 악화가 월경시도자 자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준다. 2009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도 역시 상호연관성을 보여준다.[46]

경제적 압박과 폭력을 피해 불법월경한 원주민 이주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들은 고난을 겪는 존재인 동시에 새로운 모색을 멈추지 않고 모험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이들의 직업은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일차적 관련이 크고, 그들의 경험은 멕시코의 다른 지역 출신 '불법' 이주민들이 겪은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트랄코테펙 원주민들의 사례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불법 미등록 이주민으로서 직장에서 폭력의 희생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 현상이다.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조차도 서툴러서 멕시코 '방언' 사용자로 규정되어 불리한 법적 고용조건과 횡포에도 변변한 항변조차 못했다.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백인보다 낮은 취급을 받았다면, 이들은 종족적으로 더욱 천시 당했다. 흔히 오아하카 꼬마(oaxaquitas), 추잡한 인디오(indios sucio)라 불리며 노동착취를 겪는 이들은 이중으로 인종주의적 경멸을 받는 복합적 주변화 대상이다.[47] 하지만 원주민 이주자들은 그런 취급에 좌절하지 않았다. 종족적 자의식에 바탕을 두고 전통적인 직조 작업을 복원시

45) Fernando Riosmena, "Return versus settlement among undocumented Mexican migrant: 1980-1996", Jorge Durand & Douglas A. Massy (Eds.), *Crossing the Border: Research from the Mexican Migration Project*, Russell Sage, 2004, p. 275.

46) Wayne A. Cornelius, David Fitzgerald, Pedro Lewin Fisher, Leah Muse- Orlinoff (Eds.), *Mexican Migration and the U. S. Economic Crisi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2010, p. 10.

47) Ortiz, *Mixtec Transnational Identity*, p. 48. Renee Reichi Luthra, "Into the mainstream? Labour market outcomes of Mexican-origin worker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4, 2010, p. 835.

켰고,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는 원주민의 주체적 사상 인디아니스모를 발전시키면서 오아하카와 캘리포니아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 사례로 사포텍 기업가 마테오스(Fernando López Mateos)가 1999년부터 발간하여 멕시코와 미국에 배포하는 격주신문 오아하카인(El Oaxaqueño)은 오아하카에서 그래픽 디자인하여 LA에서 35,000부를 발간한다. '원주민전선'도 1991년부터 월간 엘 테퀴오(El Tequio)를 발간하고 온라인판도 도입했다. 거기에 믹스텍어와 스페인어로 '믹스텍인의 시간'(La Hora Mixteca)을 송출하고, 문화적 생존을 위한 원주민 언어 번역 및 보존 서비스에 노력하며, 경계를 넘는 감성을 지닌 작가와 비주얼 아티스트의 양성을 장려한다. 이들 대중매체는 이민자 시민사회에 덕성의 공동체 구현을 호소한다.[48] 여기에는 60-70년대 남부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여 멕시코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독자적 문화운동이며 지금도 영향력이 유지되는 치카노(chicano) 운동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의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를 만든 사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들은 현재도 활동하는 대학생 조직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민 시민권 획득과 투표권 행사 캠페인으로 교육, 고용 및 종족적 차별에 항의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요구한 투쟁역량

48) Jonathan Fox and Gaspar Rivera-Salgado, "Building civil society among indigenous migrants", Fox & Rivera-Salgado (Eds.), *Indeginous Mexican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La Jolla, CA: Center for U.S-American Studies USCD, 2004, pp. 21-2. 믹스텍의 트랄코페텍의 경우 언어를 비롯한 원주민 유산을 비교적 강하게 유지한다. Cota-Cabera, Hildreth, Rdriguez, and Canseco Zárate, "San Miguel Tlacopetec as a community of Emigration…", p. 4. 사포텍 505,992/777,253 vs 믹스텍 510,8010/726,601이다. 실제로는 젊은이들은 원주민 언어에 관심이 크게 떨어진다. 예컨대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아서 대부분 계약농업노동자로 이주한 믹스텍의 후스틀라우아카(Santiago Juxtlahuaca)는 전인구 73%가 원주민언어의 사용이 가능하고, 28%가 원주민 단일언어를 사용한다. 사포텍의 틀라코룰라는 63%가 원주민언어를 사용가능하지만, 9%만 원주민 단일언어를 사용한다.

이 축적되어 있다.[49] 이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미국의 공공영역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끼쳤고 이들에게 '문화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주민 사회의 성숙에 크게 기여했다.

'문화적 시민권' 개념은 이민자들이 인종, 종교, 계급, 젠더 혹은 성적 취향에서 차이를 유지할 권리를 요청하면서도 모든 시민에게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 의미를 인정한다.[50] 이런 측면에서 경계넘기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초국가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 전지구적 맥락에서 지역과 지역, 로컬과 로컬의 연결망과 관계 맺기를 사고하는 트랜스로컬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 논의에 길잡이로 삼기에 유리하다. 나아가 사회적 활동자로서 이주민이 정착지 공동체의 능동적 구성원인 동시에 본향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트랜스로컬 공동체 시민권' 개념으로 논지를 심화시킬 토대를 제공한다.[51] 그렇다면 초국가적 공동체 시민권 개념과 트랜스로컬 공동체 시민권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들이 기존의 사회영역에 현존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같지만 트랜스로컬 공동체 시민권 개념은 적어도

---

49) Richard Griswold Castillo, "A border region and people", Castillo (Ed.), *Chicano San Diego: Cultural Space and the Struggle for Justice*,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7, pp. 1-11, 치카노들은 오래 전부터 미국남서부에 거주해온 멕시코계 미국인으로서 이주민들과는 가족구성, 생활스타일, 언어생활 등에서 차이가 있고 불법이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임상래,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맥스아메리카와 치카노」, 『라틴아메리카 연구』 16-2, 2003, pp. 199-233.

50) 문화적 시민권 개념도 차이를 긍정하는 자유주의와 동화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 전자는 Wil Kymlich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1995; *Politics in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arism, and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후자는 Judith Vega, "A Neorepublican cultural citizenship: Beyond Marxism and Liberalism", *Citizenship Studies* 14-3, 2010, pp. 259-74.

51) Fox & Rivera-Salgado, "Building civil society among indigenous migrants", pp. 26-7.

두 가지 방식에서 초국가적 공동체 시민권 개념과 다르다. 첫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에 훨씬 더 정확한 기준을 포함한다. 둘째 공적영역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더 분명하게 명시하므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공동체, 곧 탈영토화된 공동체의 공적인 일에서 구성원의 경계와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정립한다.

문화적 시민권 개념과 공동체 시민권 개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것이 자주 집단행동을 통해서 성립된 사회적으로 형성된 구성원이란 의미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공동체 시민권'은 사회적 행위자 스스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그들 구성원의 경험과 결합하는 것을 말하고, 오아하카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한 구성원이 특정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 '공동체'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시민권' 개념은 포함되는 영역이 영토적으로 로컬, 지역 혹은 국가든 또는 일정한 문화적 부문이든 보다 더 신중하게 개방된 반면, 트랜스로컬 공동체 시민권 관념은 그 안에서 구성원이 실행하는 공적공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세 번째는 '문화적 시민권' 개념의 최종 목표가 기본적으로 이주민이 미국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조건에서 경쟁적인 협상을 지원하는 과정이라면, 트랜스로컬 공동체 시민권 관념은 경계를 넘는 다중공간규모(multiscalar)의 공동체에서 양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도전적 위상을 인정한다.

샌 디에고의 산 미겔 트랄코테펙 위성공동체의 현실은 믹스텍 정체성에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이 작용하는 방식과 남캘리포니아와 오아하카 주에서 시민참여를 자극하는 방식의 탐색에 유용하다. 사실 위성공동체 트랄코테펙은 본향 공동체와 다른 점이 많다. 아직 멕시코 전통 반다(banda)를 들을 수는 있지만[52] 멕시코 말은 듣

52) 반다는 브라스 밴드에 바탕을 두고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Rancheras를 비롯하여, Corridos, Cumbias, Baladas 그리고 Boleros로 구성된다.

지 못한다. 토티야와 커피원두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담배는 피울 수 없다. 십대는 교복을 입지 않고 유행하는 캘리포니아 패션은 따른다. 할머니들은 별로 많지 않지만 가정에는 트랄코테펙의 수호성인 산 미겔 대천사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축제(Guelaguetza) 특히 9월의 샌 디에고와 트랄코테펙에서 동시 축제는 같은 춤과 의상, 음악, 음식을 볼 수 있다. 비록 현재 자녀들이 미국의 교육체계에 편입되면서 교육수준의 상승과 함께 언어와 생활 스타일이 크게 동요하지만 이주가 전통적인 문화적 실천들을 완전히 쇠퇴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는 별로 많지 않다. 고유문화의 어떤 요소들만은 유지하고 고향의 가족들과 결속을 강조하는 혼종성은 이들의 특징이다.[53]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오아하카와 남부 캘리포니아 이주민공동체가 트랜스로컬 연대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이며 부르디외의 말을 사용하면 '문화자본'이다.[54]

트랄코테펙 주민들에게 이주와 종족성 및 시민참여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시민조직에서 다양한 수준의 시민참여가 언어, 종교, 사회문화적 경계로 형성된 종족성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주민이 경계를 넘는 순간 공동체에서 개인의 사회적 결합의 원천이 되는 시민권, 소속 및 종족성은 즉각 도전받는다. 멕시코인의 일반적 종족성은 메스티소이지만 특별히 사포텍이나 믹스텍 원주민 집단들의 인디오 종족성은 국민국가 또는 그것을 넘어서 집단적 권리와 인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조직 형성의 기초로 작용한다.[55] 샌 디에고의 트랄코테펙에서 믹스텍 종족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통합요소이고 원주민 자치권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

---

53) Cohen, *The Culture of Migration in Southern Mexico*, p. 145.

54) Pierre Bourdieu, "Les trois états du capital culturel",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30, 1979, pp. 3-6.

55) 그렇다고 메스티소 종족성과 인디오 종족성에 선명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종택, 「멕시코 원주민 정책과 종족성: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관계」, 『라틴아메리카 연구』 18-4, 2005, pp. 237-270.

이다. 그 결과 원주민 공동체는 독자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고 특별히 이주민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들의 고유문화 요소들이 관계망의 발전에 점진적인 힘과 권리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이 메스티소가 갖지 못한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오르티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고향 구성원들의 지리적 분산은 종족적 경계와 종족의 기본적 엠블렘(언어, 시민-종교 축제, 영토)의 재구성을 요구한다"[56]

그러나 이런 위성공동체의 경계가 강고한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가면서 경계도시의 다른 공동체의 성장으로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트랄코테펙 위성공동체도 다른 믹스텍 공동체를 포함하도록 경계선을 확장했고 다른 종족 집단과도 협력관계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로컬 정치가 가능했던 것은 본래 오아하카 주에서 1995-98년 간에 '오아하카 주민의 정치제도와 절차에 관한 선거법'(CIPEO)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로 지방자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두 개의 합법적 로컬거버넌스 체계가 존재한데서 기인한다. 오아하카의 570개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400개 이상 원주민공동체가 한편은 정치적 정당 체계, 다른편은 관습법(usos y costumbres)을 따른 공식자치권(agencias)을 누려왔다.[57] 관습법의 적용문제는 원주민 공동체와 남부캘리포니아 소재 위성공동체의 관계를 트랜스로컬 관계로 판단하게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습법은 공동체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적지 않지만 통상 주민의 공동체 집회에서 '종교' '정치' 및 '사회적'인 공

56) Ortiz, *Mixtec Transnational Identity*, p. 127.

57) 관습법은 스페인 식민지 이전부터 있었고 식민지 시기에도 만들어져 뒤섞인 것이다. 2007년 현재 오아하카 주 570개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418개 자치단체가 관습법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적 봉사직(cargo)이 의무적으로 배당된 계서적 체계를 형성하고, 트랄코테펙 공동체의 경우는 이 세가지 유형을 결합했다.[58]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에 채택할 때는 오랜 여당이었지만 오아하카 주에서 헤게모니와 통제력을 상실해가던 제도혁명당이 원주민 지도자가 당연직 당원이 되도록 요구했기에 많은 격론과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원주민 지도자들의 전폭적 찬성으로 원주민 공동체의 자율권 확장을 목표로 관습법이 시행되었다. 오아하카 주의 공동체 자치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원주민 회유정책인 인디헤니스모의 산물이다. 그러나 1994년 인접한 치아파스 주에서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봉기가 일어나면서 정책적 성과의 평가를 두고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관습법에 따르면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공동체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협회(cofradías)에 속하여 통상 3년 정도 시민적·종교적 의무((cargo, téquio)를 수행해야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금으로 대체한다. 그 밖에도 공동체 구성원의 결혼과 제사에 재화, 돈, 봉사의 상호교환 곧 품앗이(servicio, cooperación 등)[59]에 참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과 춤의 축제(Guelaguetza) 품앗이에 참여하고, 성인축일 후원금(mayordomías)을 순환과 무상 원칙에 따라 자진 분담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컬공동체 소속이라는 정체성 부여에 기여하는 문화정치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는 공동노동과 공동부담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지만 중요한 토대는 구성원이 공

58) Ortiz, *Mixtec Transnational Identity*, p. 33. Perry, Doshi, Hicken, and Mendez Garciá, "Between Here and there: Ethnicity, civic participation, and migration in San Miguel Tlacopetec", pp. 211-2.

59) 공동체에 봉사 노력(tequio) 모든 가구가 공동체 정부에 제공해야하는 자발적 봉사(servicio) 이는 정치적 직책(cargo)처럼 다양한 시민, 정치, 종교 위원회에서 계서적 지위를 가진다. 협조(cooperación)는 년간 지역발전과 공동체 축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비용을 말한다.

동체의 공유재산 용익권을 누리는데 있다.[60] 축제의 역할은 이주지에서도 그대로 작용한다. 특히 겔라겟차 축제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매년 4곳에서 열려 범-종족적으로 오아하카 원주민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물론 그 내부에는 종교적 측면과 함께 본향의 여러 촌락들의 개별적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사회적, 시민적, 정치적 조직들은 원주민 이주자들이 '공적 제례의식'을 통해서 이전에 보유했던 집단적 정체성이 새로운 맥락을 경과하면서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문제는 도리어 본향 공동체에서 발생했다. 노동연령기 남성의 이주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관습법적 직책을 수행할 인적 자원의 고갈로 일부공동체는 이주민에게도 시민 및 종교적 책임의 수행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심지어 만일 의무 수행에 소홀하면 공동체 구성원의 용익권 심지어 공유재산권도 잃을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대체로 공동체 마다 차이는 적지 않지만 이주민 가구의 절반 정도는 직책 의무 수행에 가족 가운데 누군가 참여하는 것을 보여준다.[61]

그러나 이것도 현재 공동체마다 대응방식에서 다르고 일반화가 어렵도록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향 트랄코테펙의 경우는 공동체 구성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직책을 수행하도록 귀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동체 사업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사실상 이주민들은 공동체 참여에서 많이 배제되었다. 멀리서 투표할 수도 없고, 최근에는 지방자치 직책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게 되었다. 위성공동체 트랄코테펙 이주민 일부는 고향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그럼에도 공동체 구성원 3/4는 이주민이 계속 고향의 직책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자각한

60) T. Muterbaugh, "Migration, commom property, and communal labour: cultural politics and agency in a Mexican village", *Political Geography* 21, 2002, p. 474.

61) Cohen, *The Culture of Migration*, p. 44.

다. 로컬 거버넌스 참여에 관한 전통적 규칙과 이주민들이 처한 현실의 한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이주민들이 점차 고향의 공동체 사업과 의무에서 배제되고, 이중국적인 이주민들이 세계화의 하인으로 정착하고 본향으로 귀환이 감소하면서, 본향을 지키는 이들에게 직책과 봉사 및 품앗이 부담이 계속 증가했다. 아울러 공동체 구성원에게 마을의 집단생활을 유지할 책임 부과가 증가하면서 공동체를 지켜온 주민들이 역설적으로 이주민 되기를 고려하는 자극을 주었다.[62] 이것은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적 봉사직에 참여를 자극하고자 월 4,000 페소(미화 400 불) 정도의 재정을 지원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다만 이주자들의 이중적 정체성을 포용하고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정책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는 작용했다.

4. 오아하카 주 이주민의 트랜스로컬 연대와 로컬리티의 재구성

현재 오아하카 원주민 공동체의 존립에서 이주문제가 끼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가장 많이 논의된 쟁점은 흔히 미그라돌라레스(migradólares)라고 불리는 이주민의 송금이 끼치는 영향의 문제이다.[63] 지금까지는 국가차원에서 송금수입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외부시장을 지향하면서 내부균형이 무너지

62) Perry, Doshi, Hicken & Méndez Garciá, “Between Here and there: Ethnicity, civic participation, and migration in San Miguel Tlacopetec”, p. 215.

63) Fitzgerald, *A Nation of Emigrants…*; p. 25. 멕시코는 2006년 250억 불 이상으로,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송금수입국가이다. 송금의 경제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과잉소비를 자극하여 경제를 위축시켜 이주로 이끈다는 비판적 관점으로 나뉜다. 그러나 관습과 도덕 같은 문화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동의한다. p. 128.

고 로컬노동과 노동시장을 형성할 공동체의 하부구조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하는 종속모델 관점과, 송금 수익이 국가와 로컬의 경제성장을 자극할 자본을 축적하는 긍정적인 잠재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긍정하는 발전모델 관점이 경쟁하고 있다.[64] 현재 오아하카에서 원주민 이주의 증가는 공동체의 약화를 가져오는 과정적 측면이 분명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재정적 자원을 장기적 전망에서는 축적이 가능한 계기도 제공하는 이중성이 작동하므로 신중한 평가를 요청한다.

필자의 관심은 사회경제적 차원을 넘어 원주민의 자치권 투쟁이라는 정치문화적 차원에 있다. 오아하카 주에서 오랫동안 공동체의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원주민들의 자율성 쟁취 투쟁은 정당 특히 20세기의 오랜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의 부패한 지배와 압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자치권 획득을 의미한다. 그러한 투쟁은 이주민들의 거주지에서도 나타났다. LA에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참여한 광범한 비형식적, 비당파적 정치참여 조직이 나타났고 그것은 형식적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의 탄생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러한 로컬 공동체의 시민 및 정치조직 참여에서 독특한 것은 오아하카 주 이주민과 고향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범-오아하카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연결망 역할을 수행하는 양국가적(binational) 조직이 많이 출현한 점이다. 본향의 조직이 기본적으로 지역-종족적 자치공동체의 요구를 직접 대변한다면, 양국가적 조직은 집단적인 원주민 종족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융합되어 있다. 코헨이 오아하카 주민들은 결코 본향을 포기하지 않는

64) Jim Airola, “The use of remittance income in Mexico”,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4, 2007, pp. 850-859. Pablo Acosta and Pablo Fajinzylber “How important are remittances in Latin America?”, Pablo Fajinzylber and J. Humberto López (Eds.), *Remittances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Latin America*, The World Bank, 2008, pp. 21-49. 주종택,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와 송금」, 『라틴아메리카연구』 22-1, 2009, pp. 99-128.

것이라고 말한 지적은[65] 정확하다.

> "이들 조직은 그 안에서 이주민들이 오아하카 주민이고 원주민이라고 인정되는 집단적 실천의 제도화를 통해서 사회적 정체성들이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개방된 공간을 열어 준다. 즉 이들 다양한 집단적 실천들은 그들의 특수한 문화적, 사회 및 정치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담론을 발생시킨다. 그들이 이런 실천들을 발전시키는 실제의 그리고 상상의 공간은 '오아하카 캘리포니아'라고 불리워진다"[66]

이들 조직은 집단적 행동주의와 문화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특정 공동체를 넘어 경계선을 확장했다. 그 역할은 이주민으로서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 산물로서 종족적 정체성을 더 광범하게 확정하는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집단적 실천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면서, 공동체 건설과 문화 교환 및 정보 교류를 장려한다. 특히 양국가간 조직의 활성화는 원주민 이주민들이 미국과 멕시코의 특정지역에서 고용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둘러싸고 응집할 계기를 제공했다. 이들은 다양한 시민 및 정치 조직을 구성하고 집단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했다. 믹스텍 이주민들은 이미 1980년대에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 비슷한 독자조직들을 만들었고 특히 '트랄코테펙 시민 위원회'(CCTP)가 합법적 지위 획득, 송금, 불법처우 문제 등에 대응하며 종족성, 계급정체성, 인권과 사회적 권리 같은 민주주의를 의제로 삼은 것은 원주민 출신 이주민들이 각성된 의식을 보여준다.[67]

믹스텍과 사포텍이 결합한 결정적 계기는 1991년 캘리포니아 187조(Proposition 187)[68] 반대시위이다. 이들은 반대시위가 촉발시

---

65) Cohen, *The Culture of Southern Mexico*, p. 144.

66) Fox and Rivera-Salgado, "Building civil society among indigenous migrants", p. 14.

67) Fox and Rivera-Salgado, "Building civil society among indigenous migrants", p. 16. (Tlacotepec Popular Civic Committee)

킨 이주민의 급진화와 오아하카 바깥에서 경험한 차별에 각성하여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 축제 반대운동을 계기로 통합 조직 '믹스텍-사포텍 양국 전선'을 건설했다. 이것이 점차 '원주민전선'으로 성장하여 오아하카 원주민 종족집단의 공통적 쟁점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었다.[69] '원주민전선'은 원주민 공동체의 자결권, 양국가간 인권·정의·젠더 평등의 촉진을 목표로 삼고 미국과 바하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양국가간 조직으로서 가장 혁신적 월경을 감행하는 잡종적 조직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70] 인종차별과 노동착취를 경험한 원주민의 인권, 노동권을 비롯한 권리문제에 고심하는 '원주민전선'은 멕시코 국가체제보다는 오아하카 주 정치에서 이주민이 직면하는 이중정체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연대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이는 결국 국가중심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경계의 다공성이 증가된 멕시코가 국민행동당(PAN) 출신 빈센테 폭스(Vincente Fox) 대통령(2000-2006) 시기에 신연방주의를 수용하고 이중국적과 이주민 참정권 허용 정책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이주, 특히 원주민의 이주가 가져온 투쟁과 연대에 대응이란 성격이 강하다.[71]

'원주민전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결정적 계기는 민주혁명당(PDR)과 느슨한 동맹을 맺고, 1998년 오아하카 주의회에 최초의 의석을 확보하여 로컬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이다. 이들은 제도혁명

68) 미등록 이주민에게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건강치료, 공교육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1994년 11월 59 vs 41%로 통과되었다.

69) Stephen, *Transborder Lives*···, p. 294.

70) 원주민전선 외에도 오아하카 원주민 위원회 양국간 동맹(COCIO) 외에도 오아하카인 지역 조직(ORO), 오아하카 고지대공동체 연합(UCSO), 오아하카 원주민이주자 공동체 조직((Organizació de Comunidades indígenas Migrantes Oaxaqueños, OCIMO) 등이 있다.

71) David G. Gutiérrez, "Migration, emergent ethnicity, and the 'third space: The shifting politics of nationalism in greater Mexico", Paul Sickward (Ed.), *Race an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Histories*, Routledge, 2012, p. 284

당을 비롯한 정치적 당파들이 원주민의 이해관계를 표현에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지방자치와 공동체 당국자 임명에서 관습법의 적용을 지지하고 나섰다. '원주민전선' 구성원은 현재 믹스텍 지역에서 15개 지방자치체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72] 이들은 먼저 이주민으로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사포텍과 믹스텍이라는 종족적 차이와 계급, 사회정치적 참여의 경험을 넘어 결합한 점에서 원주민 종족성의 재구성 뿐 아니라 로컬리티의 재구성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들은 비록 양국가에 걸치는 조직이지만 활동이 멕시코와 미국이라는 국가적 틀보다는 오아하카 주와 남부캘리포니아에 국한되는 점에서 트랜스로컬한 사회정치적 조직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73]

서론에서 소개한 교사파업 투쟁은 그런 사례로서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2006년 8월 LA와 프레스노(Fresno)에서 온 일단의 '원주민전선' 회원들은 오아하카 시에서 민중회의와 22구역 지도자들과, 후스틀라우아카(Santiago Juxtlahuaca) 와와팡(Huajupan de Léon)의 다른 지도자들을 직접 만났다. 당시 '원주민전선' 총조정자 도밍게스(Rufino Domínguez)는 교원조합 지도자 파체코(Enrique Rueda Pacheco)를 만났고, 여성문제 조정자 로메로(Odilia Romero) 또한 공공 TV와 라디오 방송국과 상업방송국들을 점령한 여성들을 만

---

72) Ortiz, *Mixtec Transnational Identity*, p. 86. FIOB 창설 주역 모랄레스(Algimiro Morales)가 조직의 부패를 비판하며 1990년대에 세운 '오아하카 원주민 공동체 동맹'(The Coalition of Indigenous Communities of Oaxaca. CICIO)은 주민의 문화적 지향과 정체성 강화에 주력하며, 정부지원 없이 겔라겟차 축제를 열어 오아하카 문화를 알리고 기금을 모금한다. 이주민 조직의 역동성은 최근 창설한 '캘리포니아 소재 오아하카 원주민 공동체와 조직연맹'(Oaxacan Federation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FOCOICA)에서도 목격한다.

73)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나이 많고, 결혼한 남성, 이중언어 사용에 유리하며 캘리포니아에 이주한 기간이 더 오랜 이들이다.

났다. 이런 활동에서 '원주민전선' 지도자들이 직면한 과제는 먼저 원주민과 이주민의 권리 투쟁과, 다른 광범한 쟁점들 사이를 구분하는 일이었다. '원주민전선'의 모든 회원들이 오아하카 민중회의와 22구역지부 지지에 전면 동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원주민전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리된 민중회의가 결성되었고, 이 조직이 LA 민중회의이다. 새로 형성된 LA 민중회의 회원들은 오아하카의 저항운동이 직면한 억압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2006-2007년 초까지 일련의 대중 동원을 감행했다.[74] 행진과 항의 시위, 집회, LA 주재 멕시코 영사관에서 회합은 오아하카 출신 커뮤니티의 다른 분파들 뿐 아니라 오아하카 출신 주민들과 멕시코 출신 다른 주민들과 LA의 라틴계 사이에 관계망을 강화했다. 시위와 행진을 조직하는 활동은 양국민의 조직과 동원에서 원거리 의사소통과 전자통신 정보의 힘을 보여주었다. 특히 휴대폰은 민중회의 지도자들이 오아하카의 다른 지역과 의사소통하는 핵심 도구였고 오아하카 민중회의와 LA 민중회의의 국경을 넘는 조직화 과정에서 극적인 정서적 유대를 획득하는 순간들을 만들었다. LA 행진 기간에 LA민중회의 지도자들은 오아하카 민중회의 지도자들과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지지와 감사를 천명하고 공원에서 음량을 증폭시켜 방송했다. '원주민전선' 활동가 리베라-살가도[75]와 오딜리

---

74) 오아하카 사태로 죽은 자를 표상하는 관을 들고 행진하는 죽은 자의 날과 같은 행동을 포함시켰고, 민중회의(APPO)의 지원으로 전통적으로 성탄 이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것을 나타내는 포사다(posada)와 결합시켜 12월의 'APPOsada'를 개최하였다.

75) "한 밤중에 맥아더 공원에서 오아하카로부터 그들의 보고서를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오아하카로부터 지도자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군중들을 거대한 침묵이 그들은 덮었다." "군중은 오아하카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을 흡수하였고 오아하카에서 움직임에 관한 서슬을 매우 조심스럽게 청취하였다" 이것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통합시켰다. 이것은 멕시코 영사관 앞 공원에에서도 일어날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LA에서 당

아 고메로는 이 휴대폰 방송 순간을 기억하며 그것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힌다.

LA민중회의는 2010년 주지사 선거에서 유권자 조직과 선거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06년 야당동맹(PRD-PAN-연합) 후보였고 현대 들어서 최초의 비-제도혁명당 출신 주지사였던 감비아노 쿠에(Gambiano Cué)는 '원주민전선'을 통하여 교원노조 22구역지부와 민중회의를 비롯한 오아하카 주민조직의 도움을 받았다. 쿠에는 '원주민전선'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산토스(Rufino Domínguez Santos)를 주정부 산하 오아하카 이주민 연구소(Oaxacan Institute for Attention to Migrants) 이사로 초빙하여 양국간 조직과 유대관계 설정에서 신기원을 열었다. 이런 '원주민전선'과 오아하카 주정부의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새로운 관계는 2011년 개최된 양국회의에서 확고하게 선언되었다.[76] 주목할 것은 이 회의에서 6명의 지도자단에 캘리포니아에서 온 두 젊은 여성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77] 이것은 지금까지 오아하카에서 지방자치는 물론이고 양국간

신들의 연대에 매우 감사 합니다" Lynn Stephen, "Oaxaca in Los Angeles, Los Angeles in Oaxaca: Transborder organizing in California", *LASAFORUM*, spring 2012 vol. xlii, issue 2.

76) Lynn Stephen, *Transborder Lives…*; p. 58. 2011년 원주민전선은 새 지도자를 뽑고 일련의 토론과 전체회의(plenary assembly)를 거쳐 양국에 걸치는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개막식에서 오아하카 주 진보정부가 원주민전선을 공개적으로 포옹했다. 이전의 민중회의에서 원주민전선 참여자들이 은밀한 적대감이나 억압 받은데 비해서 제7차 회의는 감비아노 쿠에 주정부의 원주민전선 지지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원주민전선은 쿠에 주지사 내각에 핵심인물 알비노(Gerardo Albino)를 사회발전국장(Secretary of Social Development)으로 파견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파견이 정치적 야심의 표현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2001년 테오티틀란(Teotitlán) 읍에서 자치단체장이 귀환한 이주민의 경험을 존중하여 중요 직책에 임명한 경우가 있다.

77) Centolia Maldonado & Patricia Artía Rodríguez, "'Now we are awak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Oaxacan indigenous binational front", Fox & Rivera-Salgado (Eds.), *Indigenous Mexican Migrants in the United*

조직의 연대와 활동이 국경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합법' 남성 이주민 연장자 중심 활동(gerontocracy)으로 전개된 것을 교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여성이주의 증가로 위성공동체에 제2세대가 출현하여 합법이주민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경험이 확장된 것과 연관 있다. 트랄코테펙에서 상당수의 이주민 가족은 적어도 부모 가운데 하나는 미등록이지만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한 '혼합적 지위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혼합적 지위의 가족보다는 본국방문이 줄고 특히 어린이가 미국에 정착하면 교육문제 등으로 귀향은 더욱 줄어든다. 여성이주와 정착에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그것이 경제적 동기를 능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이주가 본향 공동체에서 경제적 동기를 넘어서 일정하게 제도화하면서 여성이주도 같은 경향의 궤도를 따르고 이주동기도 교육문제 등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보여준다.[78]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귀환을 꿈꾸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공통적으로 고용과 소비 그리고 자녀교육의 기회를 따라서 영구정착을 더 선호한다.[79] 그 결과 여성들은 새롭고 다양한 사회경험의 영역에서 시민적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양국 간 조직의 트랜스로컬 연대에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그 동안 전개된 성인 남성 위주의 이주경향은 본향에 남은 여성들이 공동체의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는 물론이고 공동체의 시민적 직책을 비롯한 공적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측면이 있

States, p. 497, pp. 508-509.

78) Applby, Moreno and Smith, "Setting down roots in the United States", pp. 64-74.

79) 정착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미국의 의료체계이다. 멕시코인들의 의료관련 단기귀국에 관해서 Heading South, "Why Mexican immigrants in California seek health services in Mexico", *Medical Care* 47-6, 2009, pp. 662-669.

다.[80] 이런 현상은 양국가 조직의 트랜스로컬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긍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활동들을 '트랜스로컬 공동체 시민권'의 구현으로 볼 것인가? 멕시코인들의 재외국민 투표권 운동이나 오아하카 주민의 범종족적 집단 정체성과 원주민과 인간의 권리에 관한 '원주민전선'의 캠페인과 같은 영토화(혹은 탈영토화)에 바탕을 둔 공동체에서 광범한 시민적 민주주의와 권리에 바탕을 둔 전망의 모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필자는 물론 이런 활동이 일정한 보편적 참여와 권리를 언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토대는 각 공동체의 로컬리티가 경계를 넘어 작동하는 트랜스로컬 공동체 시민권의 모색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몇 년간 '원주민전선'은 오아하카 주 정부의 아젠다를 이해하고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젊은이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이주민의 정치경제적 권리, 인권, 노동권과 더불어 원주민성에 관한 트랜스로컬 담론으로 호소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오아하카캘리포니아(Oaxacacalifornia)라고 불리는 곳, 오아하카 주, 바하 캘리포니아 그리고 남부캘리포니아에서 이들의 활동은 지역의 정치권력 수립과 사회경제적 쟁점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그 결과 로컬,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경계를 넘는 트랜스로컬 조직과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생성하고 있다. 예들 들면 시민의 자치적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조명하고, 공중보건, 환경오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활동은 중요한 성과이다.

위성공동체 트랄코테펙 사람들은 80%가 귀향을 상상하고, 정착한 경우에도 61%는 본향으로 귀환을 꿈꾸었으며 거기서 은퇴생활

---

80) Stephen Lynn, *Zapotec Women: Gender, Class and Ethnicity in Globalized Oaxaca*, Duke U. P., 2nd ed., 2005, pp. 312-323. 그 외에 여성 참여가 확대된 요인에 관해서는 이순주, 「지방정부에서 여성정치 리더십: 멕시코의 사례」, 『라틴아메리카연구』 23-3, 2010, pp. 221-245.

의 향유를 바랜다.[81]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끊임없이 '상상의 귀환'을 하고, 고향집으로 귀향을 곧 '낙원으로 귀환'으로 상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본향 트랄코테펙의 생활 스타일과 전통에 강한 친밀성 의식과 연관 있다. 그러면 이들이 감행하는 트랜스로컬 연대는 바로 그런 정신의 표현인가? 실제로는 이주민들이 고향에 영구귀환을 꿈꾸는 자들은 많지 않고, 점차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불법이주자로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획득한 긍정적 차원의 시민의식, 다시 말하면 시민과 권리의 이름으로 획득한 새로운 투쟁정신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언표의 측면만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내부에는 지역발전과 수익을 바라는 이주민들의 투자욕구, 이주로 말미암은 인적 자원 고갈이 역설적으로 이주자의 트랜스로컬 참여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이주민들이 대부분 적어도 얼마 동안은 귀향과 출향을 반복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이주동기가 협력에 바탕 둔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있는 원주민 이주민들은 오아하카의 고향을 결코 잊지는 못한다. 이들이 세계화의 하인으로 정착하면서 인구차원에서 인적 자원 고갈과 이주지 경제의 노동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본향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으로 축적한 돈을 본향에 송금하거나 토지, 가축, 농기구 구입에 투자하여 전기, 도로, 수로 확장 같은 지역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측면도 공존한다. 더 정확한 평가는 공동체 사례 별로 검토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중요한 전통적 지방자치 제도에 참여하여 로컬거버넌스의 성취를 요청하는 의식은 트랜스로컬 공동체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판단한다.

---

81) Applby, Moreno and Smith, "Setting down roots in the United States", p. 83.

5. 결 론

나프타 이후 거의 제도화 경향까지 보이는 멕시코인의 비합법 이주와 정착은 미국사회에서 노동과 정치의 지형도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이주민 송출국가 멕시코 자체에서도 이중국적 허용과 신연방주의 정책이라는 새로운 국민국가 운영원리 표명이 불가피하도록 이끌었다. 이 연구는 특별히 2006년 교사파업에서 진보적 연대와 행동주의를 표명한 남캘리포니아 거주 멕시코 오아하카 주 원주민 이주자들의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정치활동 의식의 형성 배경을 검토했다. 여기에는 1990년대부터 발생한 계기적 사건들 곧 1) 나프타 협정 이후 농업노동과 농업경영 시장의 경쟁력 급속 악화, 2) 멕시코의 경제위기-특히 1994년 이후 페소화 위기 3) 사파티스타 봉기와 멕시코에서 원주민의 입지에 관한 헌법적 수정에 관한 논의 4) 미국과 멕시코의 이주민 정책 변화-곧 이주민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국경경비 강화 특히 9/11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보안 강화 5) 멕시코의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및 이중국적 인정 정책 6) 최근 서브 프라임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중첩해서 작용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공유지 해체와 커피원두 가격폭락으로 대표되는 심화된 경제위기가 농민의 이주를 자극한 결과 오아하카 주 중앙산악지대 사포텍과 믹스텍 원주민 공동체는 고밀도의 비합법 노동이주를 발생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주로 바하 캘리포니아를 거쳐 LA와 인근 연결 지역으로 진출한 젊은이들은 저임금 미숙련노동자로 취업했지만, 미국인 고용주의 횡포에 겹쳐 먼저 이주한 메스티소의 차별까지도 받는 이중의 열악한 환경을 겪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종족적 자의식과 집단 정체성 형성을 자극했고, 자립을 도모하는 이주자들이 연결망 교차지에 혼종적 문화의 위성공동체들을 성립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원주민 이주자의

급증은 본향 공동체를 유지할 노동력과 두뇌를 고갈시킨다는 부정적 평가와 송금된 자금이 공동체 재건에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로 구분된다. 사실 세계경제 주도국가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인적 자원 결핍과 경쟁력 약화로 농업을 비롯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는 오아하카 주 원주민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은 발전모델보다는 종속모델에 더 가깝다. 그러나 정치문화에서 남캘리포니아 소재 원주민 이주민들은 치카노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집단행동으로 미국의 공공영역을 변화시켰고, 위성공동체와 오아하카 본향공동체 사이에 트랜스로컬 원주민 공동체 시민권이라는 혼종적 연대로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를 생성시켰다. 이 시민권은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적 시민권을 넘어서 공동체 시민권 개념을 출현시킨 점에서 확장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공화주의적 시민권의 요소를 가진다.

남캘리포니아에 새로 형성된 원주민 이주자들의 연대와 정치의식이 생성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양국간 원주민조직의 활동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후 사포텍과 믹스텍의 연대를 기반으로 종족적 외연을 계속 확장시킨 '원주민전선'은 오아하카 주 원주민 이주운동의 산물로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교사파업에서 트랜스로컬 연대활동을 거쳐 주 행정부 로컬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트랜스로컬 공동체 관념의 출현에는, 공식적 행정 체계와 더불어 식민지 이전시기부터 형성되어온 오랜 관습법 체계가 크게 기여했다. 이것은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시민적·종교적 직책과 상호부조 의무가 위성공동체는 물론 본향의 로컬거버넌스에 이주민들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이중의 합법적 로컬거버넌스 체계는 본향공동체에 트랜스로컬 참여를 긍정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에 기여했다. 원주민들이 이주의 경험에서 비롯된 투쟁과 연대활동을 통해서 종족적 자치의 권리와 의무를 새

롭게 인식하는 한편 공중보건, 환경오염, 노동착취, 여성참여 등 보편적 인권 문제를 자각하게 된 것은 이런 조직 활동의 중요한 결실이다. 그 결과 오아하카 원주민 조직들의 연대와 원주민 종족성의 외연확장과 재구성은 오아하카에 새로운 로컬리티 형성을 자극하고 있다. 원주민성을 강조하는 오아하카 원주민들의 양국간 조직 연대는 전멕시코 원주민 연대와 시민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성의 전망, 그리고 국가가 로컬 차원에서 작동하는 복합수준의 관계를 연구하는 토대로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 사례는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순주,「지방정부에서 여성정치 리더십: 멕시코의 사례」,『라틴아메리카연구』23-3, 2010, pp. 221-245.

임상래,「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맥스아메리카와 치카노」,『라틴아메리카 연구』16-2, 2003, pp. 199-233.

임상래,「미국 남서부(Southwest)의 문화·지리적 이해: 멕시코성과 국경성을 중심으로』,『라틴아메리카 연구』22-1, 2009, pp. 75-98.

주종택,「멕시코 원주민 정책과 종족성: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관계」,『란틴아메리카 연구』18-4, 2005, pp. 237-270.

주종택,「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와 송금」,『라틴아메리카연구』22-1, 2009, pp. 99-128.

주종택,「미국의 이주정책과 멕시코의 국제노동이주의 형태」,『라틴아메리카연구』24-2, 2011, pp. 1-26.

Brone, Irenne(Ed.,), *Latinos and African woman at work: race, gender and economic inegality*,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Castañeda, Alejandro, *The Politics of Citizenship of Mexican Immigrants,* New York: LFB Scholarly Pub, 2006.

Castillo, Richard Griswold, (Ed.), *Chicano San Diego: Cultural Space and the Struggle for Justice*,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7.

Cohen, Jeffrey H., *The Culture of Migration in Southern Mexico*,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4.

Cornellius, W. A., D. A. Fitzgerald and Scott C. Borger (Eds.), *Four Generation of Norteños: New Research from the Cradle of Mexican Migration*,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Cornelius, Wayne A., David Fitzgerald, Jorge Hernández-Díaz, and Scott Borger (Eds.), *Migration from the Mexican Mixteca: A Transnational Community in Oaxaca and California*,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2009.

Cornelius, Wayne A., David Fitzgerald, Pedro Lewin Fisher, Leah Muse-Orlinoff (Eds.), *Mexican Migration and the U. S. Economic Crisi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2010.

Fajinzylber, Pablo and J. Humberto López (Eds.), *Remittances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Latin America*, The World Bank, 2008.

Fitzgerald, David, *A Nation of Emigrants: How Mexico manages It's Migration*, Uni. of California Press, 2009.

Fox, Jonathan and Gaspar Rivera-Salgado (Eds.), *Indeginous Mexican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La Jolla, CA: Center for U.S-American Studies USCD, 2004.

Genova, Nicholas De, *Working the Boundaries: Race, Space, and "Illegality" in Mexican Chicago*, Duke U. P., 2005.

Grimes, Kimberly M., *Crossing Borders: Changing Social Identities in Southern Mexico,*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8.

Kaye, Jeffrey, *Moving Millions: How Coyote Capitalism fuels Global Immigration*, John Wiley & Sons Inc., 2010.

Kiy, Richard, and Christopher Woodruff (Eds.), *The ties that bind us:*

Mexican Migrants in San Diego County, Lynne Rienner Pub., 2005.

Klaver, Jeanine, *From the land of the sun to the city of angels; The migration process of Zapotec indians from Oaxaca, Mexico to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Amsterdam Press, 1997.

Kymlicha, Wil,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1995.

Lynn, Stephen, *Zapotec Women: Gender, Class and Ethnicity in Globalized Oaxaca,* Duke U. P., 2nd ed., 2005.

Lynn, Stephen, *Transborder Lives: Indigenous Oaxacans in Mexico, California, and Oregon*, Duke U. P., 2007.

Massy, Douglas S., (Ed.), *New Faces in New Places: The changing geography of American imigration*, Russell Sage, 2008.

McWilliams, Carey, *Factories in the Field: The Story of Farm Labour in California* (1939), Hemden: Archon Books, 1969: Uni. of California Press, 1999.

Schrag, Peter, *Not fit for our Society: Immigration and Nativism in America,* Uni. of California Press, 2010.

Spencer, David, *Clandestine Crossings: Migrants and Coyotes on the Texas-Mexico Border,* Cornell U. P., 2009.

Translocal Solidarity of Indigenous Migrants of Oaxacan Mexico in Southern California

Jang, Se-Yong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changing sociocultural condi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of Oaxacan indigenous migrants of Mexico in Southern California who expressed progressive solidarity and activism in teachers strike of 2006.

After NAFTA agreement in 1993, migrations of illegal or legal and settlement of Mexican which almost tend to be institutionalized have not only changed topography of labour and politics of American society but also provided the basis for emergence of new political cultural elements, policies of the dual nationality and neo-federalism in Mexico itself

This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overlap a series of events from 1990s, 1) Weak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labour market after NAFTA 2) Economic crisis-especially crisis of Peso currency after in 1994, 3) Resurrection of Zapatista and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on status of indigenous in Mexico, 4) The changes of migrants policy in America and the reinforcements of Mexico-California border guard for illegal transborders, especially after 9/11 tightening up security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5) The approval of the right to vote for Mexican citizens abroad and dual nationality policy-making, 6) Economic crisis that is represented by the sub-prime crisis in America.

After NAFTA dismantling the commonland(ejido) and deepening economic crisis that are represented bean prices drastic decline caused high-rate illegal immigration especially in Zapotec and Mixtec etc indigenous communities of Massif Central Oaxaca

The young men who migrated by illegal transborder to South California and LA via Baja California were employed as low-paid and unskilled workers and

they were placed in harsh work process and ethnical discriminatory environment cause of language problem. So they are despised by Mexican mainstream Mestizo who come earlier and exploited as undocumented labours by American employer.

However such undergoing hardship and difficulties provided stimuli in their self-consciousness and ethnical identity formation, and migrants who search for self-consciousness and settlement established the satellite communities composed with hybrid culture on area at the intersection of migration network.

Evaluations on sharply increased indigenous migration are divided into one that is deplete labour force and brain and the other remitted funds is useful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homeland community. In fact, indigenous communities of Oxacan suffered by human resource deficiency is faced nearer dependency model than development one.

But in respect of political culture, collective activities of migrants influenced by Chicao movement transformed American public sector, and established hybrid solidarity of trans-local community civil rights which generate politics of identity between satellite community and native community.

This concept of civil rights beyond the notion of cultural citizenship to recognized the differences, leads to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community citizenship that emphasizes solidarity and integration. So this has republican civil right concept which oriented integration by enlarged identity. This aspect operates as an element which stimulates homeland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course of solidarity and political consciousness newly formed, most important thing 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inational indigenous organizations. Rrpresentatively Frente Indigena de Organizaciones Binacionales (FIOB) which is continually extended based on the solidarity of Zapotec and Mixtec is product of migration movement. Which performed local politics participation through solidarity operation in 2006 teachers strike between Oaxaca and LA.

The idea of translocal community which provides the stages for this activity derived from civil and religious cargo and servio as mutual aids by the custom

laws established before and through colonial age. This law system demands compulsory participation of migrants on satellite community and especially homeland community local governance as well. As a result, this circumstance which takes for granted translocal participation on homeland community contributed to creation of new political culture. And it is very important fruition through struggle and solidarity activities from the experience of migration to newly recognize autonomous rights and obligation minds as the human rights through such a thing as the public sanity, environmental pollution, labour exploitation commonly.

In consequence, today Oaxacan indigenous organizations are in the process of forming new locality by the extensive expansion and reconfiguration of indigenous ethnicity beyond Zapotec and Mixtec solidarity. Binational organizations solidarities of Oaxacan indigenous are useful for explaining the aspect of universality and multi-layered relations of nationality's in local level, and Pan-Mexican indigenous solidarity and civil democracy. However, the prudent approach is needed because the generalization of this case is limited.

Key words: Migration, Indigenous, Zapotec and Mixtec, Binational Organization, Translocal

장세용
소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전화번호: 051-510-7438
전자우편: jdragon@pusan.ac.kr

이 논문은 2013년 3월 14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